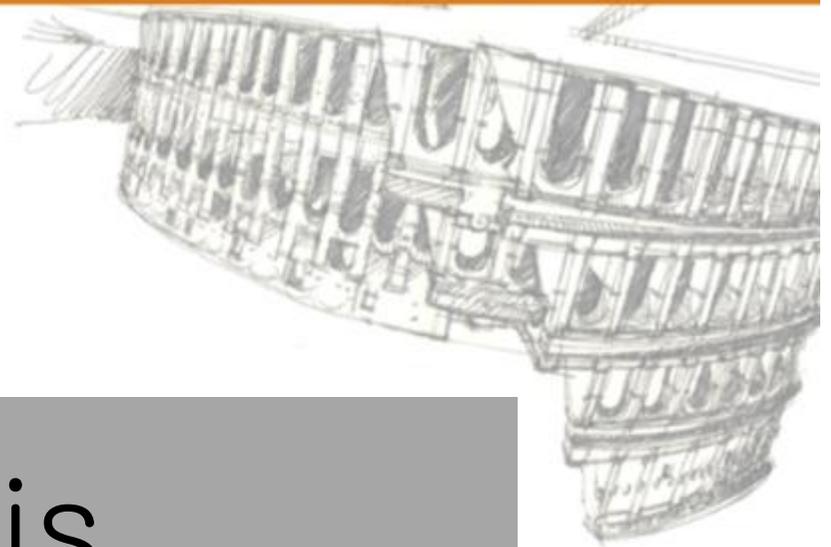


Atlantis



-이상국가, Utopia

김명배 교수



아틀란티스란?

■
아틀란티스란 신비한 대륙으로,
포세이돈의 장남인 아틀라스(Atlas)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 '아틀란티스'라 명명되었다.

■
아틀란티스는 어떻게 보면 신화상에서만 존재하는 대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유는 아틀란티스 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란티스에
대한 관심은 플라톤이 아틀란티스를 최초로 언급한 이후,
오늘날까지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 신비한 대륙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더욱 증대되고 있다.

아틀란티스의 매력과 관심



이러한 원인은 유럽인들의 문명의 **뿌리 찾기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패권을 잡은 이후 유럽인들의 관심은
그들의 뿌리인 **자신들의 문명을 과시**하는데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명의 기원?



신화상의 이야기로만 믿었던 트로이와 미케네 등의 존재가 유적의 발굴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로 바뀌면서 이러한 관심은 더욱더욱 고조 되었고, 아틀란티스도 이와 같은 영향으로 관심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럽인들은 **아틀란티스를 모든 문명의 근원이라** 생각했기에 더욱더욱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아틀란티스의 역사



아틀란티스의 전설도 신화에서 시작 한다.
바다와 지진을 관장하는 포세이돈은 아틀란티스를
다스리도록 하사를 받게 되었다. 클레이토(Kleito)는
아틀란티스에 홀로 살고 있는 님프였는데,
포세이돈이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다.
그녀는 다섯 차례에 걸쳐 쌍둥이를 낳는다.
포세이돈은 클레이토와 열 명의 아들을 위해
이 대륙을 평화롭고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었다.
큰아들 아틀라스의 이름을 따서 그 땅의 이름을
아틀란티스라고 지었다.

최고의 문명선진국



아틀란티스는 풍족한 자원과 뛰어난 문명을 바탕으로
매우 번성한 강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포세이돈을 숭상하며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던
아틀란티스도 결국은 **부패의 길**을 걷게 된다.

백성들은 부와 게으름 그리고

사치의 신인 거짓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에 아틀란티스인들은 세계 정복을 위한
전쟁에 나서 다른 섬들에 거대한 함대들을 보내
지중해 연안 정착지들의 주민을 노예로 삼았다.

타락과 멸망



그러나 이 정복 전쟁이 '아테네 원정 실패'란 결과를 가져와,
이를 계기로 아틀란티스는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그 후에 결국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하여,
많은 부귀와 영화, 그리고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아틀란티스 대륙은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

그 종말을 맞게 되었다.

고고학적 발굴과 추측



아틀란티스 대륙을 전설이나 플라톤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이상향으로만 생각하던 사람들은 1871년 독일의 슐레이만의 트로이 유적 발견과, 1901년 아디 에반스가 크레타 섬에서 미노아 문명을 발견함으로써 더욱 관심이 고조되었다.

산토리니



산토리니 화산이 터지기 전은 기원전 1600 ~ 1500년
전후가 되는데 그 당시 이집트에는 고대 문명이
발달했을 때이므로, 크레타와 이집트는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산토리니 화산이 터져, 그 영향은 이집트까지 미쳤고,
그 후에 크레타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지자,
산토리니 섬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산토리니



이런 이야기는 이집트인들 사이에 전해 오다가 솔론이 알게 되어 플라톤까지 이어지고,
기원전 335년경 플라톤의 저서 <대화편>중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라는 철학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더구나 산토리니 섬의 멸망과정과 발굴된 후의 모습은 플라톤이 묘사한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



헤라클레스 기둥의 서쪽

